19世紀英國資本主義發展을 沮害한 要因硏究

—獨逸·美國資本主義發展과 比較하여—

趙 義 俊
(東國大學校 經商大學·講師)

차 례

Ⅰ. 18世紀 英國産業의 經濟的 機能의 特化
Ⅱ. 自由貿易體制下의 經濟的 特徵
(1) 商業의 役割
(2) 特化 및 專門化 過程
Ⅲ. 낡은 經濟組織의 殘存
Ⅳ. 信用의 發達
Ⅴ. 19世紀 後半에 있어서 英國家族企業의 發達과 市場條件의 外面
Ⅵ. 技術硏究의 未熟과 機構面의 制約
Ⅶ. 結 論

Ⅰ. 18世紀 英國産業의 經濟的 機能의 特化

元來 어떤 企業이 工業的으로나 商業的으로 特化하자면 工業生産力과 市場規模가 어느程度 發展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限 企業은 經營的 統合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려우 것이다. 그 一例를 18世紀 아메리카 植民地의 最大 商社였던 Thomas Hancock 에서 찾아 볼 수 있다[1].

12世紀나 13世紀 以來의 西歐의 市場은 擧皆 局地的이었을 뿐만 아니라 輸送手段이나 支拂手段이 發展하지 못했고 그 위에 工業生産力이라는 것도 퍽 낮았다. 그 때문에 西歐의 前期的 資本이나 定住商(Sedentary merchant)들은 商業을 爲始하여 貿易·金融·運輸 및 客主制 生産을 兼營하는 形態를 取하고 있었다고 보겠다. 18世紀의 「토머스·한코크」의 企業經營은 이러한 12~3世紀의 定住商과 같은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即 이 商人도 처음에는 하나의 褓負商으로서 書籍商부터 出發했으나 當時 植民地인 America 市場의 狹少, 輸送 및 決濟手段의 未熟때문에 不可避하게 織物, 菜, 紙物等의 輸出入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海運業도 營爲하는 한편 小賣·都賣·金融業까지 兼營하는 事態를 가져오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무렵 英國 本土에서는 그간의 産業發展을 背景으로 해서 이미 定住商的 企業은 衰退되고 있었고 따라서 經濟的 諸機能은 專門分野別로 特化되고 있었다[2].

1) W.T. Baxters: The House of Hancock; *Business in Boston*, 1724~1775. 1945. pp. 15~55.

2) Astton: 18th Century; pp. 135~36.

例컨대 典型的 런던 商人 William Braund는 처음에 商人일뿐더러 船主이며 海上保險業者이었다. 그런데 '멧센' 條約으로 「폴추갈」에 毛織物이 大量 輸出하게 되자 부라운드는 이것을 專門的으로 맡게 되었으며 따라서 여기에 專門的 輸出商이 成立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輸出하기 위한 國內 集荷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그를 도맡아 일을 하는 Blackwell Hall Factor 라든지, Packer 等 專門的인 仲介業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부라운드가 輸出한 毛織物의 代金은 리스본의 代理商이 그의 葡萄酒貿易에 關連한 런던 商人에 發行한 換어음으로 支拂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부라운드는 葡萄酒輸入에 介入함이 없이 輸出貿易의 決濟를 마칠 수가 있었다[1].

要컨대 擴大되어가는 海外市場과 發展하고 있는 工業生產力에 維持된 去來益의 增大가 옛날 같으면 定住商的 企業의 一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機能的으로 各各 獨立企業으로서 營爲케 만들었다는 뜻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18世紀 後半의 英國經濟의 流通過程에 있어서는 社會的 分業·經營的 專門化가 顯著해 졌고 이는 工場制度에 바탕을 둔 近代的 產業을 支援하고 發展시켰다는 것이다. 18世紀 後半의 이러한 傾向은 19世紀 英國의 工業經營의 方向을 決定하였음은 물을 必要가 없다.

Ⅱ. 自由貿易體制下의 經濟的 特徵

(1) 商業의 役割

英國은 近代的 工場制가 이루어지기 前에 이미 넓은 海外市場을 確保하고 있었고 이것이 英國 產業革命을 急速하게 進展케한 한 理由이기도 했다. 여기에다 다시 여러 나라에 앞서 技術革新까지 겹쳐 世界市場을 더욱 많이 入手할 수 있었고 이 바탕밑에 英國은 自由貿易을 實施했다. 그러면 이러한 自由貿易體制를 支持하고 있었던 英國產業의 構造나 企業經營 形態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먼저 19世紀 英國의 產業에서 商業比重이 어느程度 였는가를 엿보기로 하자. 18世紀의 居住商的 經營이 무너지자 각가지 媒介的 企業이 發生했는데 이 專門化한 商業的 機能은 18世紀末의 產業革命過程에서 많은 小生產者들을 成長(近代的 工場主로) 하는 것을 도왔다. 따라서 이것이 產業革命을 顯著하게 促進시켰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맛콘넬·케네디會社가 始初에는 規模가 작은 粗紡業者로서 創業했는데 이때 만체스터 棉花商人으로 부터 長期로 原料인 棉花를 外上으로 사들일 수 있었으며 또한 리바풀 棉花市場에서 低率의 仲介手數料로 棉花를 買入할 수 있었다. 이로써 그는 企業基礎를 堅固히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經營規模를 擴大하는데 金融的 惠澤을 적지 않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2].

이로 미루어 보아 英國 產業革命에 있어 商業의 役割이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傾向은 다른 業種에서도 不少하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中에서도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한것은 그 當時 만체스터에 나타난 專門的 綿製品 輸出業者라고 指摘할 수 있다. 即 18世紀 後半 아프리카 西印度 및 歐洲에서 綿布輸出이 巨額에 達했고 따라서 機械制 織布工場은 아직도 實驗的 段階에 있었는데 (1815~17) 벌써 綿布輸出量은 國內消費量을 훨씬 上廻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18世紀末의 만체스터에는 國內市場을 對象으로 한 都

1) C. Wright & C.E. Eayle: A Hstory of Lloyd's London, 1928. pp. 20~25.
2) G.W. Daniels: The Early Records of a Great Manchester Cotton Spinning Firm, *Economic Journal*, Vol. XXV, No. 98, 1915. pp. 60~80.

賣商과는 全然 다른 專門的인 綿製品 輸出商이 成長했고 이들은 當時의 만체스터의 가장 富裕한 資本家層에 속할 수 있었다.

그리고 獨逸, 스페인, 기리시아 等으로 부터 와서 만체스터에 居住한 外國商人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本國 市場에의 販賣에 專業化하고 있었다고 한다[1].

다시 말해서 英國의 이 專門化한 綿製品 輸出業者는 小規模 織布企業人으로 부터 綿製品을 主로 委託制度에 의해 사들이고 이를 海外市場으로 보내서 處分했고 그 販賣價에서 手數料를 控除한 남어지를 織布業者에 支拂하고 있었다고 보아 틀림 없다. 輸出商들은 資金의 基礎가 薄弱한 織布業者가 스스로 海外販賣市場을 開拓하지 못한 틈을 타서 委託制度라는 이름밑에 去來의 危險負擔을 織布業者에 負擔시키면서 企業的으로 成長했던 것이다. 그 뒤에(1830年頃) 만체스터 輸出商들은 재빠르게 그러한 代理商的 機能을 벌이고 自身들이 外國市場에 配置해둔 代理商이나 販賣人을 通해 織布業者로 부터 얻은 織物見本에 依據해서 注文을 받고 그것을 生産業者인 織布業者에게 發注하는 한편 自己責任下에 染色 加工까지 하고 그리고 그 製品에는 輸出商 自身의 商標까지 부쳐 보내는 形態를 取하게 되었던 것이다[2].

아무튼 이와같은 「만체스터」 輸出商은 去來에 있어 生産者보다 漸漸 優勢한 地位를 確保했고 그에 따라 그들은 「만체스터」綿業에서 中心的 口實을 하게되었던 것이다.

毛織物工業에 있어서도 앞서와 같은 樣相을 나타내고 있었다. 1830年頃 「요크샤」梳毛工業의 最大 中心地인 「부라드포오드」에 24名의 梳毛織物商이 있었으나, 30年後인 1861年에는 157人으로 불어났다. 그의 4割은 當時 英國 毛織製品의 消化市場이었던 獨逸에서 온 商人들이었다고 한다[3].

그리고 「요크샤」의 羊毛業者들은 大槪 불랙포드 或은 리이즈의 梳毛輸出商을 通해 輸出하고 있었던 것 같다.

(2) 特化 및 專門化 過程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流通機構에 있어서의 經營的 特化傾向은 産業革命을 遂行함에 하나의 强力한 背景이었으나 다른 한편 産業革命 그 自體는 工業面에 있어서의 한 經營的 專業化의 움직임에 지나지 않았다. 即 外國 貿易商人으로 부터 海運業이 獨立하는 過程 鑛山業中에서 機關製造業이 獨立하는 過程, 紡績企業가운데서 紡績機械工業이 새로운 産業分野로서 成長하는 過程 國內 都賣商의 輸送機能이 通運業으로서 發足하는 過程등 모두가 生産力의 發展과 市場의 擴大 및 이에 따른 去來量의 擴大를 基盤으로한 社會的 分業=經營的 專門化의 出現에 不過했다. 그런데 이러한 專門化 傾向은 個個 産業의 內部에서도 進展하였고 特히 이무렵 英國 最大의 輸出産業이었던 란카샤綿業에 있어서 가장 徹底한 形態를 取했던 것이다.

産業革命期의 英國 綿業에 있어서는 1770~1800年 사이에 于先 紡績工程이 機械化 했고 獨立織布工層의 經營으로 부터 分離해서 近代的 工場制 企業의 形態를 取했으나 그中 織布工程의 機械化는 1830~40年頃까지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工場制 紡績業과 先貸制 支配下의 織布業間에는 社會的 分業이 成立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後 織布工程에 있어서의 機械化

1) Roland Smith: Manchester as a Center for the Manufacture and Merchanting of Cotton Good, 1820~30, University of Birmingham, *Historical Journal*: Vol. Vl, No. 1. 1953. pp. 30~50.

2) 山崎覺次郎譯 : 大工業論 p. 76.

3) C.R. Fay: Roud about Industrial Britain, 1830~60. 1952. pp. 128~31.

의 進行에 隨伴하여 織布工程이 大部分 이미 機械化되어 있는 紡績工程과 같은 企業內에서 統合된 形態로써 經營되었으나 그 傾向은 1850年에 이미 頂點에 達했고 그 後는 勞動力需要의 關係때문에 織布業은 란카샤 北部一帶에 織布專業工場이란 形態를 가지고 急速히 發展하여 「란카샤」南部에서 發展하고 있었던 紡績과의 사이에 地域化를 基礎로 한 社會的 分業關係가 매우 明瞭하게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같은 南部의 紡績地帶의 內部에서도 볼톤 및 그 周邊工場은 오로지 細糸紡績을 營爲하고 오르담 및 그 周邊工場은 太糸紡績에 만체스터 地區의 工場은 縫糸紡績에 各各 專業化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와 同時에 란카샤 北部의 局地化한 內部에 있어서도 프레스톤과 죠리의 工場은 輕量의 高級 綿糸生産에 브락그반과 다원 一帶에서는 샤쓰地 其他 粗綿布에 낼손 고룬 무늬배等에 專門化 關係가 이루어지고 있었다[1].

이와같은 紡·織이 特化하고 있었는데 그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 內部에 있어서도 特定品種의 실(糸)과 織物의 生産에 專門化가 이루어지고 있었던것 같다. 그 理由의 하나는 英國綿企業이 거의 란카샤라고 하는 地域에 集中되고 있었고 그로 因해 專門化한 어떠한 「실」을 만들어 내더라도 그를 消化시킬 수 있는 한편 如何한 特殊한 織物을 生産하려 해도 그 原料인 실을 求得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極히 限定된 品種의 生産으로 專門化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比해 生産費가 훨씬 낮아질뿐 아니라 다른 地域의 綿業은 이곳의 그것과 競爭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地域에서는 紡績機械 製造工業이 急速하게 發展하여 紡績企業이나 織布企業에 必要하고 專門化한 機械와 써비스가 提供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위에 만체스터地區에는 앞선 染色과 加工企業 및 發達된 市場組織이 갖춰어 지고 있었고[2] 이때문에 經營上 이 地域의 綿業企業이 그 어느 地方의 그것보다 튼튼했음은 물을 것도 없다 하겠다.

아무튼 만체스터의 綿業去來所 및 그 期間에 자란 專門的인 綿糸商의 活躍에 의해서 紡績業과 織布業은 서로 아주 緊密하게 맺어졌다. 綿糸의 購買者를 周施하고 紡績業者로 부터 만 그 手數料를 받는 單純한 仲介的 企業으로서의 綿糸商은 만체스터 商工業을 代表하고 있었다고 까지 알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밖에 만체스터의 輸出業者 및 그 委託下에 手數料만 받고 染色과 加工을 營爲하는 所謂 加工業者와 그 綿製品을 包裝하는 팩커(Packer)가 있었다[3].

要컨대 이러한 專門化한 商人과 여러가지 媒介的 企業과의 連結을 通해 이루어진 商業機構야말로 高度로 專門化했고 또한 特化했다. 따라서 서로 깊이 依存하는 紡績業과 織布業을 結付시켜 주는 口實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産業組織이 18世紀 以來의 定住商的 經營의 解體, 그에 따른 經濟的 特化 및 專門化의 結果이다. 英國이 일찌기 넓고 그리고 安定된 世界市場을 確保할 수 있었던 것도 實은 이러한 基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無妨할 것이다.

Ⅲ. 낡은 經濟組織의 殘存

旣述한 바와 같이 産業革命後 英國의 産業은 各樣各色의 商業的 企業 乃至 媒介的 企業에

1) *Economic History Revisw*, 2nd Ser., pp. 34~37.
2) S.J. Chapman: Lancashire Cotton Industry, Chap. VIII. p. 133.
3) Roland Smith: "Manchester as a Center" *Historical Journal* VI, I. pp. 93~6.

依存하면서 世界市場을 對象으로 自由貿易體制下의 合理的 經營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産業革命後에 생긴 自由貿易體制下의 工場制度가 오늘날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工場制度와 同一하다고 생각해서는 큰 잘못일 것이다.

工場制度의 發達初期에 이른바 先貸制 工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棉花商人으로부터 原料를 先貸받으면서 賃金紡績을 하는 많은 小紡績工場主들을 들 수 있다[1].

또한 그 後 만체스터 輸出商과 織布工場과의 關係에 있어서도 生産品의 種類나 그 量을 決定한 것은 工場主라기 보다 輸出商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것 같고 그리고 織布工場에서 사들인 綿布를 染色 및 加工工場에 委託加工시킨것도 이 輸出商이었다고 보아 틀림없다[2].

이런 點으로 보아 綿企業을 움직이게 한 것은 綿業工場主가 아니라 오히려 輸出商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先貸制 工場의 性格은 그 當時의 工場制度에서 一般的으로 찾아 볼 수 있는 現象이었다. 그런데 그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商業的 關係는 工場制度에 까지 깊이 浸透하고 있었던 것이다. 大體로 그 當時에는 獨立工場 經營者로 되는데 반드시 自身의 工場建物과 動力設備를 세울 必要는 없었다. 다시 말해서 그 時代의 많은 工場主들은 旣設工場 建物의 一部를 그 建物의 所有者인 地主나 商人으로 부터 빌리고 또한 動力이란 것도 工場附屬의 機關室로 부터 運搬되는 回轉力을 그 所有者로 부터 賃借하고 있었다[3].

이와 같은 建物과 動力의 賃借에 의한 工場經營은 非但 란카샤 綿業에서 만이 아니라 19世紀 後半期의 버밍감 金屬工業等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것 같다. 建物이나 動力이라고 하는 固定設備에의 投資를 避할 수 있었다는 點에서 볼 때 그러한 企業의 性格은 매우 流動的이며 商業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商業的 性格은 當時의 工場內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下請關係를 본다면 한層 뚜렷해진다. 이 때의 紡績工場主는 꼭 自己自身이 紡績工程을 管理한 것이 아니었고 紡績作業은 現場의 紡績工의 管理下에 實施되었다. 紡績工은 一定量의 生産을 함에 따라 그 紡績工場主로 부터 工賃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自己가 使用한 動力賃借料를 工場主에 支拂하는 한편 自己管理下에 일하고 있었던 길삼工 等에 삯을 支拂했었다[4].

미드랜드의 金屬工業에 있어서의 比較的 큰 工場의 경우에도 그러했다. 從業員의 賃金에서 그가 일할 때 使用한 料金이 支拂되었고 따라서 動力을 工場主가 아니라 마치 從業員이 準備해야 한다는 印象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勞動者들이 工場建物에 모이게 되었어도 雇傭主가 工場設備와 原料를 準備하고 生産活動을 細部까지 監督한다는 工場制 本來의 생각은 곧 導入되지 않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리하여 이 時期의 比較的 큰 企業에 있어서는 낡은 組織形態가 殘存하여 過渡的인 發展段階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段階에 있어서 經營管理上의 中心的 存在는 企業主와 勞動者와의 中間에 介在한 中間層이고 一定量의 生産을 一定額으로 工場主로 부터 請負받았고 그 作業을 遂行하기 위해 勞動者를 雇傭하여 監督하고 그에 대한 賃金을 支拂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原料買入, 運搬 및 그 밖에 넓은 意味의 生産活動에 대해 責任을 지고 있었다. 다시

1) 中川敬一郎：「イギリス綿業における工場制度の成立」日本經濟學論集 20의 1. 2.
2) 上揭書：p. 82.
3) Chapman: Lancashire Cotton Industry, pp. 62~63.
4) B. Bowker: Lancashire under the Hammer, 1928. pp. 56~57.

말해서 中間層이라 할 수 있는 監督이 工場主와 一定한 契約을 締結한 後에 勞動者의 賃金은 工場主와는 關係없이 監督이 單獨으로 決定했고 監督은 契約된 일을 마치기 前에는 工場主에게 그에 대한 支拂을 請求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組織은 小工場에만 適用되지 않고 製鐵所 같은 比較的 큰 企業에 까지도 導入되고 있었던것 같다. 미드랜드 製鐵所에 있어서 作業은 企業主의 直接管理下에 이루어지지 않고 몇 사람의 監督을 通해 管理되고 있었던 것이다. 結局 이때의 工場에서는 原價計算制度, 熟達된 事務 및 工場職員들이 不足했고 또한 集中化된 經營管理에 관한 經驗이 不足했던 탓으로 이러한 前産業革命的 經營組織이 持續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內部 請負組織은 英國 以外의 여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現象이라고 하겠다.

Ⅳ. 信用의 發達

빨리 이루어졌던 技術革命과 그에 따른 世界市場의 確保가 19世紀 英國企業에 높은 利潤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 收益率이 어느程度 높았는가에 대해서는 알길 없으나 內部蓄積을 可能케하고 그로 말미암아 企業들이 經營規模를 漸次 擴大하고 있었던 것만은 事實인것 같다. 그리고 이와같은 높은 利潤은 高水準의 技術과 넓은 海外市場의 確保에만 依存한 것이 아니다.

이미 밝힌바와 같이 專門化한 商企業은 只今까지 媒介的 企業의 發展에 의해 工業의 製品 및 原料購入이 圓滑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活潑한 市場活動으로 勞動力과 經費를 節約할 수 있었다. 製造工程의 特化 및 專門化에 의해 經營을 合理化하고 生産原價를 引下할 수가 있었다. 그 위에 工場建物과 動力의 賃借로 固定設備에 資金固定을 最大限으로 줄일 수 있는 일等에도 크게 起因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밖에 19世紀의 英國一圓에 걸쳐 發達하고 있었던 産業金融, 特히 短期 商業金融을 한層 容易하게 만들었던 것이다[1].

란카샤에서는 從來 個個의 商人들이 付與하고 있었던 信用을 이러한 換市場의 成立으로 한層 擴大할 수가 있었다. 이 때문에 어음의 割引을 主業務로 하는 個人銀行이 이 地方에 一齊히 發展하였고 그 金融機關은 工場企業에 대한 金融을 쉽게 했다. 經營이 專門化해서 去來內容이 單純해졌고 따라서 換어음의 流通 또한 容易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보겠다.

그 換 어음의 流通中에서도 原材料商과 生産者에 주어진 信用이 當時의 産業金融을 容易하게 했을 것임은 豫測하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 信用의 授受는 非但 羊毛商人과 紡績業者間에만 通用된 것이 아니라 毛糸와 毛織物去來에 있어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던것 같다.

長期에 걸쳐 安定된 利益率과 商業 金融과의 金融的 結合은 商業信用을 促進했을 뿐 株式體制의 普及을 制約하게 되었던 것이다. 工業技術의 發達은 18世紀末 부터 約 1世紀동안 英國産業에 發展할 機會를 주었고 해마다 利益率이 많아졌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다지 높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企業內部에 蓄積을 가져오게 하고 그의 再投資에 의해 經營의 擴大를 期할 수 있었다. 이 點은 後進國의 企業이 앞선 英國의 技術 및 生産水準을 導入하기 위해 早急히 經營擴張을 圖謀한 경우와는 事情이 달랐던 것이다.

그러한 經營擴大에 應할 資金은 家族的 企業의 內部蓄積가운데서도 調達할 수 있었고 또한 內部蓄積의 擴大 資金需要를 超過한 탓으로 企業外部에 있는 家計에 充當한다는 일마

1) Baines, T: History of the Commerce and Town of Liverpool, 1852, pp. 356~358.

져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企業擴大는 반드시 새 工場의 建設이라는 方式을 取하지 않고 外部의 關係企業과 特別한 去來契約을 맺는다는 方法을 擇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企業經營의 擴大는 商業的인 方向에서 實現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企業의 性格에 따라 美國的인 Big business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例컨대 鐵鋼製品들은 高度의 傳統的 熟練이 要請되며 이 때문에 大規模 經營이 招來하는 經濟的 利益에는 限定이 있었다. 이러한 限界를 넘어서려면 自然히 小規模의 作業場을 하나씩 追加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 經營管理가 갑자기 어려워짐은 여러말 할 必要가 없다. 이래서 部門制로 事業場이 나누어지지 않을 수 없었고 그 部門마다 專任의 支配人이 있어가지고 그곳을 管理하는가 하면 또 이것을 統率하는 總支配人이 出資者들에 대해 責任을 진다는 方式을 取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注目할만한 것은 職業的인 經營者가 생겨났다는 바라고 하겠다. 支配人밑에 있으면서 地代, 賃借料, 經常費等을 分擔하는 한편 外部企業과의 去來, 企業內部의 他部門과의 去來를 遂行할 뿐만 아니라 部門自體의 利益에 責任을 졌다. 이와는 달리 1850年代에는 大規模 經營體制를 갖춘 이른 바 株式會社의 先驅가 나타났으며 따라서 第一次 世界大戰前까지 傳統的 小規模 企業을 발판으로 하여 크게 經營하는 體制와 처음부터 莫大한 投資를 해서 大大的으로 企業을 經營하는 두가지 企業現象이 存在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Ⅴ. 19世紀 後半에 있어서 英國家族企業의 發達과 市場條件의 外面

部門別로 專門化한 家族形態의 企業은 安定된 利益率과 緩慢한 技術進步 및 發達한 商業信用機構 때문에 그 利潤을 社內留保하고 다시 그를 再投資하므로서 徐徐히 經營規模를 擴大할 수 있었다. 또한 이 企業은 特殊 高級製品의 生産과 輸出을 通해서 國際的 地位를 確立하고 있었던 것이다. 英國에서 比較的 늦도록(19世紀 末葉까지) 株式會社 形態가 一般産業에 採用되지 않았던 것도 實은 이처럼 家族的 企業이 嚴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또한 19世紀末 英國産業界에 成立한 株式會社의 大部分은 이런 家族形態가 株式會社로 單純하게 轉換된 것에 不過하고 따라서 19世紀에서 20世紀까지의 英國의 株式會社時代에 家族企業的 傳統이 매우 濃厚했던것도 바로 이때문이었던 것이다.

19世紀 英國의 家族企業에는 일찌기 職業的인 經營者가 存在하여 所有와 經營의 分離란 現象이 全然 없었던 것이 아니다. 紡績業은 말할것도 없고 製鐵業等에 있어서 모두 그런 現象이 나타났다. 例컨대 사우스·웰스 最大의 게스트·킨 會社의 다우레이스 製鐵所는 이미 1759年 브리스톨의 鐵商으로 부터 供給된 資金에 의해 建設되었고 존·게스토가 經營者로서 그를 運營했었다[1].

이와같이 株式會社 形態의 採用前 部門別 專門化 段階에서 벌써 職業的 管理者가 存在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은 現代的인 職業的 經營者層과는 全然 달리 專制的 性格을 띠고 있던 것 같다[2].

即 近代的 株式會社 形態下의 經營者層은 非人間的 關係를 前提로 하고 있었는데 家族形態下의 그들은 매우 人間的인 家族的 所有의 權威를 그대로 代表한 職業的 經營者層이었다.

1) Charlotte Erickson: British Industrialists Steel and Hosiery, 1850~1950. 1959. p. 53. p. 151.

2) Erickson: op. cit., pp. 54~55.

따라서 이때의 工業資本家들은 目標를 生産量 販賣量 資本金의 크기에 두지 않고 當時의 一般 風習인 貴族風에 두었으며 이 때문에 어느程度 財産을 모으면 되도록 빨리 企業經營의 活動으로 부터 손을 떼고 田園에 土地를 사서 地主貴族으로 될 뿐더러 行政機關의 役員으로 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職業的 經營者는 家族的 資本家層에 對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世紀 英國의 企業內部에는 廣範한 下請組織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産業資本家들은 直接生産過程이나 勞動過程의 管理에 대해 責任을 지는 일이 적었다. 이것은 經營管理者의 活動領域이 意外로 좁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생각할 때 高度로 發達한 商業機構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即 工業資本家들은 市場活動을 外部의 商業機構에 依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꾸어서 이야기 하면 專門的인 産地 先貸主나 輸出商을 排除하고 自身이 市場活動을 해서 消費者와 連結한다는 일이 工業家에 얼마나 어려운가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特히 鐵鋼企業은 全國에 分散되어 있었고 따라서 그의 輸出도 各地의 港口에서 行해졌다. 各地의 製鐵企業家들은 한 사람의 輸出商을 定하였고 反面 傳統을 가진 輸出商은 數個 製鐵企業과 去來하였을 뿐만 아니라 不況時에 買入, 好況時 賣出로 弱少製鐵企業을 沈滯나 萎縮으로 부터 지켜 주었다고 한다[1].

두말 할것 없이 英國企業의 이러한 體制는 英國의 海外市場에 대한 位置가 安定되어 있을 때 까지는 別問題가 없었으며 能率的이었다. 그러나 19世紀末葉 獨逸과 美國의 工業發展이 顯著하게 되고 그에 따라 英國 産業이 國際市場에서 競爭에 부딪히게 되자 英國 産業은 自然히 威脅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美國이나 獨逸은 鋼鐵生産에 있어서 英國의 그것을 凌駕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 製品은 英國의 植民地를 비롯하여 南美·極東方面에까지 進出했다.

當時의 美·獨 製鐵業者들은 鋼材利用을 促進시키기 위해 市場開拓을 積極的으로 展開했다. 特히 이들은 建築, 土木關係 技術者와 提携해서 鐵鋼利用에 대한 知識을 알았고 專門的인 技術者들이 販賣活動에 專念하는 制度를 쓰므로서 市場擴大에 成功했다. 더구나 美國 製鐵企業人들은 個別的으로 海外市場에 自己의 直接 販賣組織을 設置함과 同時에 高層建築作業의 標準化에 나섰고 이에 의해 鋼材의 市場擴大에 힘쓰고 있었던 것 같다. 이와는 달리 英國에서는 市場活動 機能이 鐵鋼商社에 맡겨져 있었는데 이 商人들은 鐵鋼技術에 관해서는 白紙였으며 따라서 鐵鋼技術의 發展에 應해 새로운 市場을 開拓한다는 것과는 距離가 멀었다. 그 위에 海外市場에서 英國 鐵物商끼리 甚한 競爭을 하게되었고 이 때문에 英國鐵鋼製品의 海外市況은 더욱 惡化狀態에 突入했다[2].

이래서 英國製品들은 그의 消化를 위해 同一品質인데도 不拘하고 輸出商社가 相違함에 따라 商標를 달리한다는 일까지 빚어 졌다. 이에 대해 美國 綿布는 大量生産뿐 아니라 製造業者의 商標가 끝까지 通用되었다. 따라서 買氣가 어느편에 集中된 것인가는 물을 必要가 없다. 또한 獨逸企業家들은 곳에 따라 品質좋은것 보다도 값이 싼 物件을 만드는데도 疎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消費者에게 돈이 넉넉치 못하면 아무리 質좋고 價格이 비싼 商品을 만들어 봤자 所用없기 때문이다[3].

要컨대 獨逸 工業家는 英國 工業家들 보다 한層 適應的이고 보다 市場傾向的이었다는 것

1) Allen: British Industries and Their Organization, 1935, pp. 120~125.
2) T. H. Burnham and G.O. Hoskin: Iron and Steel in Britain, 1870~1930, p. 211.
3) Parlimentary Papers, 1886, XXII, cited in Landes. p. 127.

을 말해 두고 싶다.

Ⅵ. 技術硏究의 未熟과 機構面의 制約

英國産業의 發展은 正式의 科學敎育을 받지 않은 實務職工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아크라이트」, 「카아드라이드」, 「제임스·웻트」 모두 그렇다. 獨逸에서 科學이 萬能이었던 것과 거의 같은 程度로 英國에서는 實地의 經驗이 重要視되었었다. 이러한 態度가 結局 英國 製鐵業에 있어서의 「스트릎·밀」의 採用을 늦추지 않았는가 한다.

獨逸은 英國 技術에 대한 落後를 回復하기 위해 技術敎育의 組織化에 힘썼고 이 組織化된 技術革新이 獨逸産業의 基本的 推進力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

英國은 이와같이 實地經驗을 通해 操業을 開始한다는 方法을 擇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새 發明에서 거듭 失敗하는 수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英國은 競爭 相對國의 사람들에 比해 實驗段階에서 工業的 可能性 與否를 打診하는 能力이 뒤지고 있었다고 보아 無妨할 것이다. 이처럼 技術的 革新이 提案되었을 적에 企業家들은 그에 대한 判斷이 缺乏한 탓으로 結局 傳統的 生産方法을 固執하기 일수였다. 새로운 生産方法에 의한 利益을 完全히 알아차려야 비로소 그것에 손을 댔던 것이다[2].

이러한 傾向은 綿業과 같은 小規模 企業에서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製鐵業과 같은 比較的 規模가 큰 企業에서도 도사리고 있었다. 假令 새 技術을 導入한다 하더라도 美國같은데서는 大大的으로 試驗하는데 反해 英國 같은데서는 아무런 試驗도 없었고 한다 해도 小規模에 不過하였다. 이 경우 大大的으로 試驗하는 쪽이 有利함은 물을 必要가 없다. 要컨대 英國의 企業者 活動은 第一次 大戰에 이르기 까지 傳統的 商業的 實地的 色彩를 갖는 反面 組織的 科學的 性格에 缺陷이 없지 않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英國 企業이 海外市場의 商業組織에만 依存하며 技術的 發展에는 關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그의 産業發展을 뒤떨어지게 한 理由라고 하겠다. 于先 外部의 尨大한 商業機構는 企業內部의 市場活動을 沮止시켰을 뿐만 아니라 美國과 같은 標準品의 大量生産을 制約했다.

英國의 業者들은 海外市場에서 甚한 競爭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競爭에서 빠져나갈 길을 特殊商品에서 求했고 이로써 織布企業의 製品의 標準化 및 經營의 合理化를 制約받았던 것이다. 한 市場에 한 店舖밖에 안가졌고 그 위에 海外 特定市場에의 輸出만 노리고 있었던 鐵鋼商社들이 自然히 小規模 製鐵企業의 去來만 相對했을 것임은 明瞭하다 하겠다. 合併같은 方途에 의해 大規模 經營으로 轉換하는 길을 찾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特種品 生産에 대한 專門化 傾向은 19世紀 後半의 綿業과 鐵鋼業에 있어서 經營的 特化를 한層 깊게 했다. 이 때문에 一般的인 商品을 大量으로 生産하는 限度內에서는 紡績工程과 織布工程의 兼營은 可能하였다. 그러나 高級 特殊品의 生産에 專門化하면 紡績과 織布의 工程은 分離되어 따로 따로 經營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常例이다. 1850年以來 랑카샤綿業에 있어서 結合經營으로 부터 專業經營으로의 움직임이 增大한 것은 여러가지 原因이 있지만 基本的으로는 이러한 市場情勢에 原因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3].

---

1) J. E. Barker: Modern Germany, 1915, pp. 478~479.

2) D. L. Burn: Economic History of Steel-Making, p. 67.

3) T. S. Ashton: The Size of Business, *Jotrnal of ths Royal Statistical Society*, Vol. 77, 1914. p. 112.

1870~80年代 부터 製鐵業이 急速하게 解體하여 鍊鐵 壓延工程만으로 專業化 다시 壓延加工만으로 專業化해 갔다는 事實은 그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1].

勿論 經營特化에 여러 特殊理由가 作用했을것 만은 틀림없지만 特定品種의 生産專門化라는 趨勢가 要請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러한 特化傾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빅토리아朝 時代의 英國 製鐵業은 全國 各地에 分散해 있었으며 市場도 그 地方에 割據하여 그 地方의 專門的 鐵鋼商社를 通해서 輸出하고 있었다. 그런데 粗鐵鋼材의 輸出에 있어서 美·獨 두나라와의 競爭이 甚하게 되자 英國 鐵鋼의 輸出은 高級鐵鋼의 生産에 重點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한편 國內市場에 있어서도 造船業 重機工業의 發達로 亦是 高級特殊鋼에 대한 需要가 커졌다. 이래서 英國 製鐵業界는 大量生産에 適應한 벳세머 製鋼法 보다 오히려 小規模 生産에 適應性이 많은 平爐法을 急速히 發展시켰다. 그리고 그러한 平爐生産의 成長基盤을 提供한 것은 傳統的인 鍊鐵生産의 組織이었다. 鍊鐵企業의 經營規模의 擴大는 小規模 鍊鐵爐의 累積이란 形態만이 可能했고 따라서 小數의 鍊鐵爐를 가진 小 製鐵企業이 英國 製鐵業界의 一般的 樣相으로 되어 있었다. 鍊鐵生産組織이나 平爐法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當時까지 殘存했던 小規模 鍊鐵企業들은 一率的으로 平爐製鋼으로 轉換하여 高級特殊鋼을 生産하는 製鋼專門企業의 一般的 成立을 誘導했던 것 같다. 事實 平爐法은 作業中 溶解金屬을 끄집어 내서 經驗的으로 그 品質을 管理할 수 있었고 따라서 英國의 經驗的 企業의 技術基礎에는 아주 알맞는 것이었다. 그러나 熱鐵投入이라든지 排氣 깨스 利用이 「깨스·엔진」이란 機構를 必要로 한 技術革新에 이르면 英國의 製鐵企業은 매우 뒤지지 않을 수 없다. 두말할것 없이 高爐作業과 平爐作業間에 있어서의 社會的 分業이 그러한 熱管理의 進步를 늦춘 基本的 要因이었으나 그와 同時에 19世紀初부터의 英國 特色인 經驗的 技術에의 信賴가 그 硏究를 沮止했음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2].

이러한 傳統的 方式에 대한 깊은 信賴가 새로운 段階의 發展을 妨害했다는 것은 企業의 財務面에서도 指摘할 수 있다. 英國의 産業은 株式組織에 의한 大衆資金의 動員이라고 하는 積極的 企業 金融으로 부터는 매우 因緣이 멀었다. 資金은 擧皆 個人的인 關係를 通해서 모여졌고 假令 株式會社라는 것이 있다해도 地方的 資本의 産物이었고 그리고 資本은 主로 親戚이나 이웃사람 또는 親知로 부터 募集되었으나 地方的 資本市場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例컨때 綿業株의 市場은 만체스터에 刃物工業株는 「버밍감」, 石炭業株는 「뉴캇슬」에 市場이 있다는 式이었다[3].

다시 말해서 先進工業國인 英國에서는 企業의 安全性이 認定되고 있었기 때문에 各 工業地域의 사람들은 企業에 自進해서 投資하려 했다. 한편 「런던」商店이나 證券市場은 이 企業들에 구태여 投資하지 않더라도 海外에 安全한 投資處가 있었던 것이다[4].

이탓으로 란카샤綿業에 있어서의 株式會社企業의 發生은 매우 特徵的인 形態를 取하고 있었다. 1867~77年 오르담地區의 綿紡績業에 있어서 株式會社가 急速히 普及되었는데 純粹한 株式會社 企業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協同組合으로 設立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1) Allen, Birmingham and the Black Country, pp. 240~242.
2) Committee on Industry and Trade, Factors in Industrial and Commercial Efficiency, 1928, pp. 206~212.
3) C. W. F. V. Wieser, Die finanziele Aufbau der englischen Industrie 1919. SS. 134~136.
4) Leland, Jenks: The Migration of British Capital to 1875. 1927. Ch. 8.

성 싶다. 이 오르담 協同組合員에 의해 「오르담」産 紡績會社가 設立되었고 所謂 棉花飢饉을 아무런 病癈없이 보냈을 뿐만 아니라 1866~70年間 1割에서 3割이라는 配當을 維持했다. 이래서 이런 形式의 企業創設이 잇달아 일어났고 그後 그 協同組合工場의 從業員들은 自己가 일하고 있는 組合企業의 株式이 아니더라도 다른 組合企業의 株式을 사들였다고 한다. 그 까닭에 雇傭主와 從業員이 同一하다고 하는 組合企業 原則이 차츰 崩壞되고 實質的인 株式會社로 變質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오르담을 中心으로 해서 株式會社 組織이 1872~75年에 發生하게 되는데 그의 設立은 普通 專門的인 設立業者의 손을 거치지 않고 綿業技師에 의한 工場設計 및 其他 廣告에 의해 地方的 株主의 應募를 얻었고 會社의 重役들은 大部分 個人企業의 紡績業者로서 經驗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企業의 資金은 株式資本 보다는 借入資本에 의해서 運營되었고 그 借入資本의 大部分이 工場周邊의 勤勞者層에 의해 供給되었다. 卽 公稱資本金의 一部만이 實際로 株式으로서 公開되고 많은 量이 未募集株로 남겨지는데 그 旣募集株에 대해서도 額面의 約 半은 拂入되고 나머지 半은 未拂入한 채로 남아 있었다.

工場價値 보다도 훨씬 작은 拂入株式資本을 補充하기 위해 工場周邊의 綿業用 機械工과 飮食店, 小賣業者들로 부터 작은 規模의 資金이 募集되었다. 그리고 社債와 같은 長期確定利子付貸付가 아니고 그 利子率은 그 企業의 收益에 의해 變動했으나 一般貯蓄銀行의 預金利子보다는 多少 높은 利子가 支拂되었었다. 自己들 生業의 成衰가 달려 있고 또한 그 內容을 곧 알 수 있는 企業에의 貸付일 뿐만 아니라 如何튼 알려주기만 하면 償還할 수 있는 約束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工場周邊의 勤勞者層에게는 다시없는 投資對象이었던 것이다[1].

以上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世紀末 란카샤 綿業은 紡績業에 관한 限 株式會社의 普及으로 家族企業的 色彩가 드디어 稀薄했으나 그 株式會社 金融은 始前히 地方的 個人關係를 通해 이루어졌고 産業組織으로서의 中央證券市場과 株式組織의 投資銀行의 發達같은 것을 促進한 것은 全然 없었다. 英國의 이러한 資本市場의 構造가 19世紀末에서 20世紀初에 걸쳐 後進國 綿業의 進出에 對抗하려고 「란카샤」綿業이 經營合理化를 圖謀하려 했을 때 壁에 부딪혔음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무렵에는 小規模 企業의 合同에 의한 大規模生産에의 轉換이 不可避하게 되는데 株式所有를 通한 企業合同의 可能性이 없고 또한 銀行資本과의 關係가 稀薄한 英國 企業은 漠漠했다. 單只 製品의 多樣化와 特定品種의 生産專業化로 原價를 切下하려고 企圖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結局 美國 企業의 單一製品의 大量生産 原價引下에 市場地位를 讓步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Ⅶ. 結　　論

産業革命期에 英國의 工業生産을 火急히 發展시킨 가장 基本的 要因은 「겔드」的 乃至 官府的 規制로 부터 完全히 解放된 아주 自由스럽고 個人主義的인 企業活動의 可能性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具體的으로 農村工業이란 舞台에 있어서 中産的 生産者層 自身에 의한 技術的 發明 또는 企業化를 起點으로 해서 産業革命의 이른 바 小生産者 發展을 誘致했다. 그러한 小生産的 發展은 當初부터 國內 市場뿐만 아니라 重商主義體制에 의해 確立된 世界市場을 발판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때에 成長한 近代的 工場主들은 大部分 當時 高度

1) J. Clapham: An Economic History of Modern Britain, Free Trade and Steel, 1850~86. pp. 140~145.

로 發展하고 있었던 國際的 市場機構에 依據하고 商業信用的 媒介에 도움을 받으면서 小規模의 職場主로 부터 本格的인 工場主로 發展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國際的 商業機構의 主軸을 이룬것은 前期的 資本이나 定住商이 아니고 代理商 仲介人等 各種 媒介的 商業企業이었던 것이다. 世界 各地의 市場으로 부터 여러가지 需要를 連繫하는 專門化한 商社에 媒介되어 英國企業들은 特殊商品의 生產에 專業化해 갔던 것이다.

18世紀에 있어서의 產業的 發展이 英國에 世界市場과 國際的 商業活動의 專門化를 가져왔고 이것은 다시 產業革命期의 產業經營을 專業化했다. 이러한 方向이 生產性을 높이게 하고 工業經營을 合理化시켰을 뿐 아니라 그것은 또 19世紀 國際市場에 있어서의 英國의 競爭力을 强化시킴과 同時에 海外市場의 擴大를 꾀했다. 이러한 循環이 自由貿易體制下의 英國企業의 基本的 過程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市場活動에서 外部商業機構에의 依存 特種商品 生產에의 專業化, 內部請負組織의 存在, 工場 및 動力의 賃借, 固定投資의 脆弱性等은 英國企業의 活動範圍를 좁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위에 企業活動 範圍의 狹少는 匠弟制度와 같은 個人的 經驗에 基礎를 둔 比較的 緩慢한 技術的 發展과 安全된 收益率에 基因한 自己金融等 때문에 英國企業은 19世紀에 家族的 企業形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家族的 體系는 第2次 產業革命의 發展過程에서 英國企業은 國際的으로 매우 뒤지게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點은 19世紀 後半의 美國企業의 經營과 아주 對照的이다. 卽 이무렵 美國에서는 人口의 西部에의 移動, 그에 隨伴한 鐵道의 發展 및 都市化의 進行에 對應하여 擴大해 가는 膨張된 國內市場을 그리고 그에 나타난 大量的 標準品 市場을 어떻게 把握하는가가 新興產業의 最大課題이었다. 美國企業도 처음에는 英國과 마찬가지로 市場活動을 都賣商人이나 代理商에 依存하고 있었는데 擴大해 가는 市場을 自身이 直接 掌握할 必要가 있어 漸次 巨大企業으로 育成시켰던 것이라고 보겠다. 英國은 于先 國內市場이 地理的으로 좁고 內外市場의 需要內容이 매우 複雜多岐하고 美國市場 처럼 標準製品에 대한 大量需要가 없었다. 英國의 產業革命과 그 後의 自由主義的 經濟發展을 支持한 그 强力한 國際的 商業機構 및 그를 발판으로한 專門的 商企業의 活躍自體가 結局 英國企業의 市場活動을 沮害하고 19世紀末의 英國產業의 發展을 制約했다. 또한 英國 產業革命을 이룩한 家族的 地方的 資本市場의 傳統이 19世紀末의 標準品 大量生產體制에의 轉換 (그를 위한 金融的 可能性까지)을 制約한 外에 產業革命의 技術的 起點을 이룬 技術工의 經驗的 技術의 信賴가 英國에 있어서의 組織的인 技術硏究와 敎育活動의 發展과 工業技術의 大量生產에의 適用을 遲延시켰다고 생각된다. 英國에 있어서 獨占形成이라든지 Big buiness의 成立이 늦은 理由의 하나도 모두 이러한 企業內部의 市場的 財務的 技術活動의 微弱에 있다고 여겨진다.

〈Summary〉

An Analysis of the Disturbing Factor to the Growth of British Capitalism in the 19th Century

——Comparative Study of British Case with Growth of Capitalism in Germany and United States——

by

Eui-Joon Jo

(Instructor. Economics & Commerce College, Dongguk Univ.)

It is a fact that the British economy had entered the stage of growth from the second part of the 18th Century. She also accomplished the Industrial Revolution before any other nations in the world did. This led Great Britain to hold exclusive power of monopoly over the world markets but her overseas markets began to declin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t deserves our attention to study why Great Britain was defeated by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despite she employed all available methods, including technical renovation, to recover her failing influence in the world sphere of economy. In effect, British enterprises had met with various obstacles, namely traditional concept on enterprise and pressures from old economic system and industrial institutions.

Great Britain had to suffer from her recess in competition with the rival countries because of factors listed below:

1. Specialization in Functions of Economy in the 18th Century:

Industrial potentials for production and the scale of market should develop to a certain degree in parallel with each other when and if an enterprise is to attain its purpose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specialization. In Great Britain, traditional bonds, time-old industrial system and family-centered businesses retarded the progress of joint-stock limited partnership system. Furthermore, over-reliance on markets abroad also spurred to delay.

2. Characteristics of Economy under the Free Trade System:

A. Great Britain had held worldwide market well before she established industrial factory system in terms of modern category. She was also able to carry out technical renovation ahead of other countries. On the strength of these two major factors, she employed a free trade policy and carried out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which British commerce played a vital part.

B. In pushing her specialization process, it was true that tendency for speci-

alization in market mechanism constituted a strong backbon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Bu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ndustrial Revolution was merely a process for economic specialization in the industrial sector and did not present any rapid changes as seen with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but involved the bottleneck of lack of progress.

3. Existence of Outmoded Economic Organizations:

The post-revolution industry of Britain was dominated, not by factory system visible in the modern commercial and enterprising institutions, but by putting out system which existed at the initial period of development. Many of the arge-scale enterprises at this time had therefore outmoded managerial system and were groaning for outlet from a transitionary period.

4. Development of Credit Financing:

For a long time, the British enterprises were bent on enjoying stabilized rate of profits. Their association with commercial finance spurred their status of financial standing in commerce but restricted the spread of joint-stock limited partnership. Like other backward countries, Britain did not attempt to expand drastically and overnight management to allow the influx of technology and higher standard of output rate. The British had not necessarily followed the construction of new factories in expanding enterprises but fulfilled this task only by concluding contracts with enterprises concerned. In conclusion, they preferred commercial means to expansion of enterprise management.

5. Development of Family-Centered Enterprises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and Negligence of Market Situat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say that existence of family centered enterprise system deterred the adoption of joint-stock limited partnership system in Britain. At this time, the British industrial capital owners did not place their emphasis on the output, marketing and capitals but on the then prevailing aristocratic practices. Because of this, they tended to depart from business, as quickly as possible, once they earnd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and invested their money in farms or real estate in their desire for becoming landlord, artistecrat and officials of government agencies. The industrial capital owners depended their market activity solely on commercial system. The system was proven to be efficient as long as Britain's position in the world markets was secure but faced with menace whe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developed their industry aroun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began to compete with the British. Thus, the British industry began to witness recession.

6. Immature Research on Technology and Restrictions on Enterprise Management:

The British industry has developed thanks to apprentices who have not received any formal education on science. In a striking contrast, Germany strived to help develop her technological education as a means of coping with backward technological know-how. While Germany's systematized technical renovation was a moving spirit behind her industrial development, Britain chose a method of running the mills on the basis of practical experiences and was apt to suffer from failure in many cases. In other words, Britain lacked an ability to find industrial potentials in the process of experiment when compared to their competitors overseas. Furthermore, the British enterprises relied on commercial mechanism outside of Britain and lacked interest in technical development. These factors were considered liable to slow industrial development of Britain. First of all, enormous market mechanism outside of Britain hampered market activity of enterprises concerned and placed restrictions on the production of standardized commodities as with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Eventually, Britain had to make concession to the United States in overseas markets because of American mass production of single commodity with the lower price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cope of activity for the British enterprises was extremely limited by the over-reliance on commercial mechanism outside of the country, specialization in the production of specific commodities, lend lease of factories and power energy and investments in fixed assets.

The British enterprises of the 19th Century could not escape from the family-centered system because of the slow technical improvement due to the apprentice system and of self-sustaining financial system upholding stable profits. This family-centered system, therefore, was a main factor which made the growth of British enterprises extremely slow in the process of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in competition with other countries. Judging from this historical background, one can say that backward countries are always assured of proper means of overcoming their backwardness.